

음담패설·성추문 공방...“가장 추잡한 토론”

美 대선 2차 TV토론

인사도 없이 헐뜯기 돌입

“정책 실종 진흙탕 싸움” 혹평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2차 TV토론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사태와 소득세 회피 의혹,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등 두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일제히 도마 위에 올랐고, 거친 공방전이 정해진 시간 90분을 넘겨가면서 속 썪 틈 없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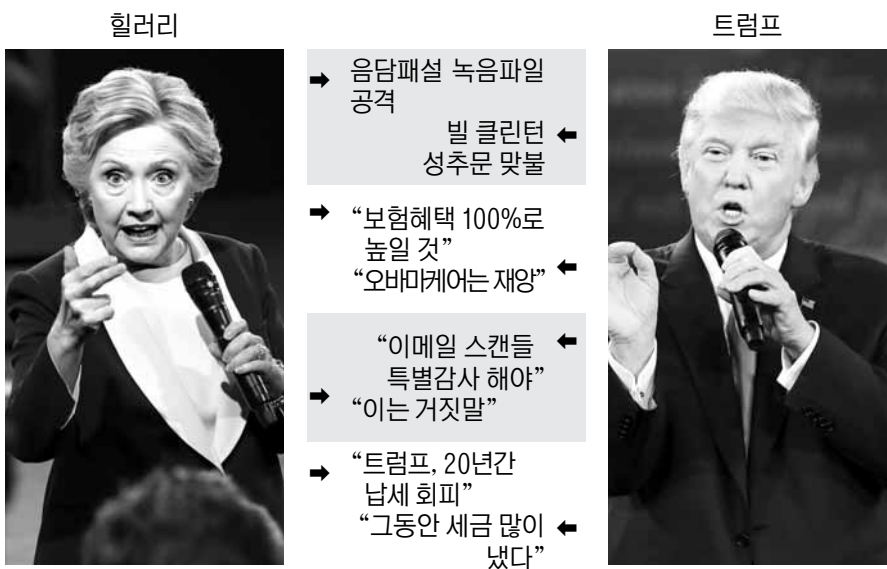
9일 저녁 9시(미국 동부시간)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난타전 모드로 돌입했다.

첫 대면부터 냉랭했다. 토론을 이룰 앞두고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돼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가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로 맞불을 예고한 탓인지 두 후보의 얼굴을 잔뜩 굳어있었다.

무대의 양쪽 끝에서 중앙으로 들어선 뒤 형식적인 악수조차 하지 않고 청중을 향해서만 인사한 후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클린턴은 균형적 계열의 바지 정장, 이른바 ‘전투복’을 입고 나왔고, 트럼프는 1차 토론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을 갖춰냈다.

초반부터 트럼프의 뇌관인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터졌고, 예열 없는 공방전이 시작됐다. 트럼프는 “나만큼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은 탈의실에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힐러리-트럼프 토론 무슨 말 오갔나



그러자 클린턴은 “비디오야말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대변해 준다. 여성을 모욕했고, 점수를 매겼고, 수치스럽게 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예고한 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들춰냈다. “나는 말만 했는데 그(빌 클린턴)는 행동으로 옮겼다. 그가 여성에게 한 짓은 성학대”라며 “정치역사상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역공을 가했다.

두 후보는 정중의 질문에 누가 먼저 답변할지를 놓고서도 티격태격했다. 건강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먼저 하세요”라고 하자, 트럼프는 “나는 신사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라며 도로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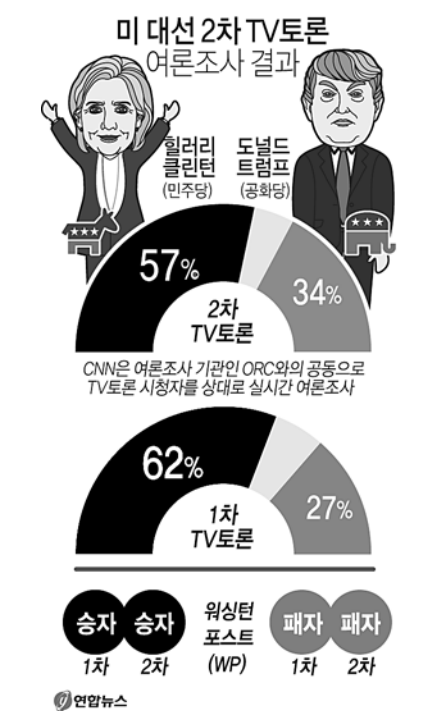
결국 클린턴이 먼저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늘리고, 혜택의 범위도 90%에서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대답하자, 마이클은 넘겨받은 트럼프는 곧바로 “오바마

케어는 재앙과도 같다”고 받아쳤다.

트럼프는 이메일 스캔들로 클린턴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3만3000 개의 이메일을 지웠고, 역대로 그렇게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던 적은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통령이 되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말한 모든 것은 틀렸다. 놀랍지도 않다. (청취자들은) ‘힐러리닷컴’에 들어가서 사실 확인을 해보라”며 거짓말로 물고 갔다. 이어 “트럼프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법을 책임지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트럼프는 “그럴 경우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받아쳤다.

트럼프의 연방소득세 회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클린턴은 “10억 달러의 손실을 신고해 연방소득세를 20년간 내지 않은 사람이 최고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주려고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선공했다. 그러자

2차 토론 승자도 힐러리



트럼프는 “나는 정말 많은 세금을 냈다”고 두 번이나 말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TV토론이 끝나자 언론의 혹평이 쏟아졌다. 차기 정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시청자에게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이전투구식 입씨름만 가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TV토론 사상 가장 추잡한 토론”이었다고 평가했고, CNN방송은 “진흙탕 싸움”이라며 “일일 말 미국 정치가 바뀌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암울한 토론이었다. 두 사람은 90분 동안 서로에 대해 공격만 했다”고 비판했다.

물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침몰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4명을 구조한 뒤 체포해 처벌했다.

2012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산둥(山東) 선 선적 어선 4척에 함포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돼 갈 등이 빛어진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불법 조업과 EEZ 무단침입 혐의로 중국어선 세 척을 억류하고 선원 100여 명을 체포했다. 이 어선들은 130만 랜드(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 뒤 풀려났다. 앞서 인천시 옹진군 소동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100t급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너무나 중국 어선...각국 격침·벌금 폭탄 강경 대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발표와 나포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어선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과 아프리카 인근 어장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연합뉴스

피해국 상당수는 어선 나포와 격침, 벌금 폭탄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제압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올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표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으며,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면서 강하게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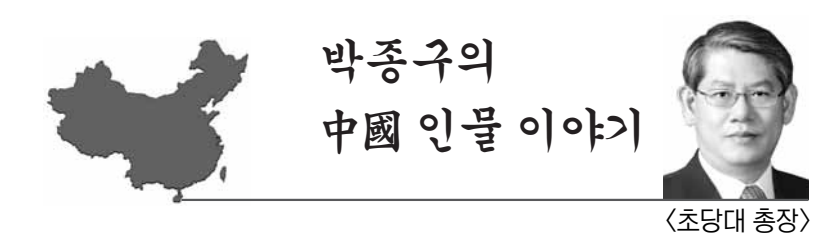
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맞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이후 외국선박 220

여척을 폭파해 침몰시켰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에만 중국어선 한 척 등 외국어선 91척을 가라앉혔고, 올해 8월에도 다른 외국 선박 60여척과 함께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침몰시키려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막판에 이를 연기했다.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골치를 앓아 온 베트남은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를 탑재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이 피해국 해군의 발표에 격침되는 일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460km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1 원제 사마에

사마에(司馬睿, 276-322)는 동진의 초대 황제로 자는 경문이다. 사마의의 증손으로 낭야왕에 봉해졌다. 팔왕(八王)의 난으로 서진 정권이 흔들리자 강남으로 내려가 건강에서 즉위해 동진 정권을 수립했다.

어리석은 헤제의 황후 가남공의 전횡으로 조정이 크게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태부 양준 일파를 제거하고 사치와 음란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황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마씨 일족이 거병했다. 8명의 왕이 정권을 놓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였다. 소위 8왕의 난으로 조정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초왕 사마위, 여남왕 사마량, 조왕 사마륜, 제왕 사마경, 성도왕 사마요, 하간왕 사마요, 장사왕 사마에, 동해왕 사마월이 그들이다. 여덟 왕의 혼전은 서진의 통치를 크게 약화시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강남의 사족인 고평과 하순은 왕도와 왕돈이 사마에를 극진히 모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사마에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왕도는 사마에에게 “고평과 하순은 남방의 귀족 가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벼슬을 내리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를 것이다”고 건의도 안전해졌다.

남하한 북방의 귀족들은 틈만 나면 양자강 기슭의 신장이라는 곳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주익의는 선비가 “풍경은 다르지 않으나, 눈을 들어 보니 산천이 다르구나”라고 한탄하였다. 왕도는 “마땅히 함께 왕실을 위해 힘을 합쳐 중원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찌 마주하고 울고 있는가”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거두고 그에게 사죄했다.

동진 초대 황제...왕돈 위협 시달리다 병사

다. 사마에는 황태제인 성도왕 사마영의 감시를 뚫고 강남으로 탈주했다. 내란으로 황족은 거의 다 죽었다. 중신 왕도의 의견에 따라 건업을 분기하지 삼은 낭사왕만이 견재했다.


강남 지방의 토호 귀족들은 사마에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중원에서 남하한 사마에 세력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도는 사마에에게 “선비를 대할 때 경양하고, 씹음을 그치고 절검하며, 정치를 청정하게 하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주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천하자 강동의 민심이 서서히 귀의했다. 동진 왕조는 사실상 사마씨와 낭사 왕씨가 힘을 합친 연합 정권이었다. 이 왕조는 중원을 회복해 다시 천하를 통일하려는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북벌(北伐)이 필연적 과제였다. 당연히 군사를 거느린 군부세력의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군사력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낭사 왕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왕씨와 사마씨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王馬共天下)라는 일화가 탄생한 배경이다.

이민족이 침입해 장안이 함락되자 서진의 마지막 황제인 민제 사마염이 평양에 포로로 끌려갔다. 민제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마에는 317년 황제로 즉위해 연호를 개원이라고 정했다. 그는 왕도를 숙부라 부르며 국정을 함께 논의했다. 왕도는 정치대군을 장악했다. 사촌 형 왕돈은 강주, 양주, 형주, 상주, 교주, 관주 등 6주의 군사력을 장악했다. 그는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측근인 유외와 조협에게 힘을 실어주고 왕도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노련한 왕도는 불쾌한 심정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미가 괄괄한 왕돈은 “강을 멀리 건너 다음 다리를 부수는 격”이라며 반발하였다. 왕돈은 322년 무장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유외를 격파하고 건강에 쳐들어가 황제를 위협했다. 왕돈은 더욱 포악하고 오만해졌다. 황실이 보내는 공납을 대신 차지했고 장군, 관료 등이 그의 가문에서 배출되었다.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복을 비는 명절에 왕도는 사마에게 가마를 타고 위엄과 의식을 갖추게 하고, 자신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뒤따랐다. 황제의 기다란 행진대열은

325년 황제는 근심스럽고 분해 병이 나 죽었다. 사공 왕도가 유조를 받들었다. 황제는 공손하고 겸손했지만 명석함과 결단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대업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아들 사마소가 뒤를 이으니 진명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12억7천4백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정가 15억 ▶ 최저가 10억5천4백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키아라온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 최저가 4억9천1백
- ★ [토지] 남구 신도시 중앙공원 중심상업지구 대지 439㎡ 조망좋은 상가, 오피스빌 건축 추천 감정가 8억6천5백 ▶ 최저가 6억6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평동역 인근 기계기구포함 토지 5,895㎡ 건물 2,816㎡ 감정가 29억5천5백 ▶ 최저가 21억5백
- ★ [토지] 나주시 대호동 답 3,379㎡ 2중일반주거 동신대인근 주택단지 건축추천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7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교묘역은 12층중 6층 건물 327㎡ 감정가 6억4천1백 ▶ 최저가 6억4천1백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봉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의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운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송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조 매매 4억 (용2억2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4천 월 2천7백7십만원 매매 50억 (양양병원하기취득)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킨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IC인근 4차선 대로변 대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 5천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